그 사람 지금은

(43) '홈런왕' 김봉연 前 해태타이거즈 선수 〈상〉

"원정경기때 호텔방서 공부…후배들이 싫어했죠"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영원히 잊힐 수 없는 '홈런왕' 김봉연(56).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가 자리를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가 수년 전 스포츠계를 떠나 대학 강단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었다.

야구만 한 선수가, 그것도 최정상에 올랐던 스포츠인이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언제 공부를 했을까?

야구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무수한 억측들이 오갔다.

현재 그의 직함은 극동대학교 사회체육과 부교수. 교양으로 골프를 가르치고, 전공은 건강관리법(운동생리학)을 강의한다. 또한 대학 홍보실장을 겸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학생처장과 홍보실장, 학과장 등 주요 보직을 도맡았다. 역사가 짧은 사립대일수록 홍보업무가 중요하고, 학생처장의 권한이 막강한 점을 고려하면 그가 대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0년 해태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면서 김성한 코치가 감독으로 선임되자 그는 정든 그라운드를 완전히 떠났다.

은퇴 후 친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극동대학교의 유기일 총장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됐다. 그때 친구들이 "이 친구는 최고 선수였음에도 항상 공부를 해왔습니다. 강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건의가 받아들여져 강단에 서게 됐다.

그는 특이하게도 프로야구 선수시절 석사를 마쳤다. 그만

석사 준비하는 모습 본 김응용 감독 "감독도 할 텐데 뭐하러 공부하냐"

큼 운동선수이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었으며, 항상 영어 카세트를 듣는 등 노력을 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선수들과 달리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 지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공부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교과서를 팽개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군산상고 시절, 수업에 들어갔다가 선배들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너 뭐하는 짓이냐'라며 야단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야구가 최고 인기 있던 시절이라 야구선수들은 공부를 안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결국 그는 주간에 수업을 받는 것이 눈치가 보여 야간반(당시는 은행취업반이 있었다고 함)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한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 원정경기가 있을 때면 후배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와 한방을 쓰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호텔방에서 카세트를 듣거나 책을 보기 때문에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86년 원광대에서 석사(운동생리학)를 마쳤다. 공부한답시고 티 낸다고 할까봐 석사 공부를 하면서도 단 한번도 운동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논문 발표식 때는 어쩔 수 없이 연습을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안 김응룡 감독이 "너 참 재밌는 놈이다. 프로야구에서 그

약 력

- ▲1952년 전주 출생
- ▲군산상고·연세대 졸업
- ▲한국 최초 아마 야구 3연타석 홈런 기록
- ▲1982년 프로야구 원년 홈런왕, 1983년 한국시리즈 MVP
- ▲극동대학교(충북) 사회체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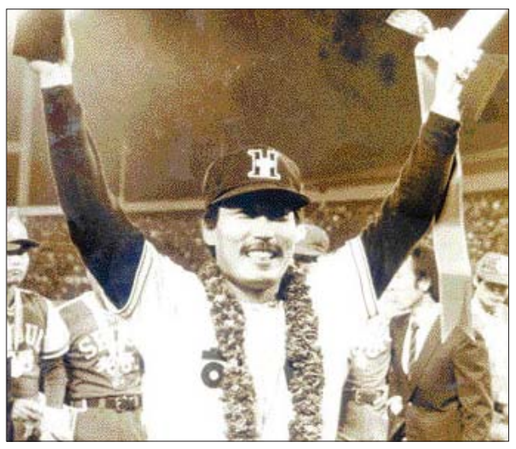
만큼 인기 있고, 앞으로 감독도 할 텐데 뭐하러 공부는 하냐"라며 한마디 하더라는 것이다.

"저는 누가 뭐래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오랜 기간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은 '운동이 자연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이론에 접목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운동선수들의 운동 전과 후의 자연세포 기능을 테스트 한 결과, 선수들은 운동 후 에너지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자연세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운동을 마친 선수는 상당 시간 일반인들에 비해 저항력이 약해져 병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다.

결국 운동을 마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곧바로 술이나 담배 등을 가까이 할 경우 감염률은 더욱 높아지며,



1983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MVP 시상식 직후, 환호하는 팬들에게 두 손을 들어 답례하는 김봉연.

반대로 몸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는 체력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2001년 첫 강의를 했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2시간 짜리 강의를 위해 3개월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다.

칠판에 '김봉연'이라는 이름을 쓰면 학생들이 다 알아먹고, 쉽게 강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모르자 순간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이 왕년의 홈런왕이라고 하자, '홈런왕은 이승엽이 아닌가요'라며 반문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부모님께 김봉연 선수한테 수업을 받는다고 말해보라고 했더니 다음 주 부터는 부모님 부탁

대학 강의, 야구·골프 해설 통해 제2의 '인생 홈런왕' 노려

으로 사인을 해달라는 학생들이 하나둘 나타났으며, 확인차 학교를 찾아오는 부모들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정식교수가 아니라 겸임교수로 시작했으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지고, 영어와 일어를 어느 정도 하던 터라 학교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그는 수년만에 부교수까지 올랐다.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2~3년 전까지 야구 중계를 했고, 지금은 골프 채널 중계를 맡고 있다.

지난 해부터 학교 생활에 좀 더 전념하기 위해 대학 주변에 전원 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

극동대가 위치한 충북 음성은 사실상 경기도와 인접해 있어 그는 매일 서울 집과 학교 사이를 출퇴근하고 있다. 학교 일정과 방송 일정, 그리고 가끔 왕년의 스타를 찾아주는 각종 매체들과의 인터뷰 등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김제 금구

신라때 세운 금구산성 '유물 보고' 1980년대까지 들판서 사금도 캐

황금물결을 이뤘던 호남벌판에 추수가 끝나고, 단풍 절정으로 행락 인파가 붐빈다. 1번 국도를 따라 지평선 축제로 이름난 김제들 동편, 금산사로 통하는 원평을 거쳐 옛 금구현터에 다다른다.

옛길을 따라 갈 경우 태인 정어원에서 원평 홍인원을 거쳐야 한다. 주막이 있었던 향원가든을 접어들어 금구면사무소~금구초·중학교~주조장~향교~농협연쇄점으로 이어지는 중심거리가 고색창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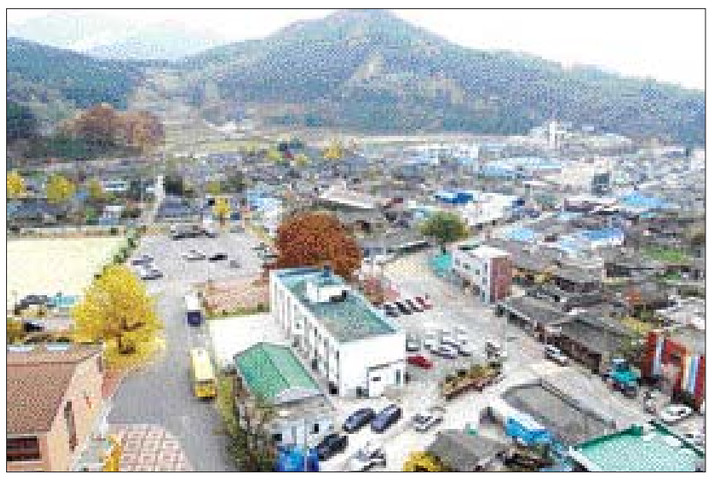
백제 때 구지지(仇知只)·구지산(仇智山)으로 '구드르' 또는 '구리기' 이며, 757년 '금구(金溝)'라 했다. 1170년 이의방의 외향이라고 현령으로 승격했고, 별호는 봉산(鳳山)이다. 1895년 금구군이 되었다가 1914년 김제군 소속의 면으로 전락했다.

호남정맥 엄뫼(모악산)에서 뻗어온 구성산(488m)~매봉산(249m) 자락이 남동쪽에 병풍을 이룬 금구 읍내는 동편에 봉두산(鳳頭·279m), 남쪽에 남산(177m)이 우뚝하다.

북서쪽은 두월천과 원평천이 만든 들판으로 터져 있어 광주와 전주 같은 형세다.

1872년께 금구현 지도를 보니 관아 북쪽, 개울 건너편에 학머리~사직단~양사재~여단 까지 '송성(松城)'이 뚜렷하다.

북서쪽의 허함에 따라 조성된 비보(裨補) 숲으로 여겨진다. 솔숲에 학도 더했으니 읍내다리를 '학교(鶴橋)'라 했다.



금구현이 자리했던 김제시 금구면 소재지 전경.

1912년 보통학교가 설립된 163번지일대가 관아터로 객사(鳳城館·봉성관)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군기고와 관덕정, 서편에는 시장, 남쪽에 장·향청과 향교, 북쪽에 내아·동헌(淸愼堂·청신)과 창고·이청(吏廳)이 있었다. 동헌 바로 북편 못(池·지)에는 일람정과 연당(蓮堂)도 있었다.

후기 신라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구산성이 있다. 금구향교 만화루(萬化樓) 앞에는 37기의 빗돌이 세워져 있다. 경술국치때 순절한 장태수 유물, 그와 관련된 남강정사와 서강사도 있다.

금구는 지명 따라 '금골'로 유명하다. 1902년 고깔봉(215m) 금구광산과 1913년 선암광산에서 석금이 일인에 의해 채굴됐다. 양석동에는 금광취락의 흔적이 보이고, 1990년대 개발된 냉풍굴도 있다. 사금은 1980년대까지 산동·낙성·청운리 두월천 연변의 논에서 캐냈다.

전 고려대학교 권혁재 교수는 모악산은 편마상화강암의 산지로서 함금석영맥이 많아 석금 산지로 알려졌고, 모악에서 흘러내리는 두월천과 원평천의 충적층과 기반암 또는 풀라이스토세층의 접촉부위에 사금이 묻혀 있다고 했다.

읍지에 봉성온씨와 여산송씨가 토착 성씨로 소개돼 있다. 일제 때 부자는 키타카와, 술도가 여산송씨, 천석굴 동래정씨였다고 한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